

“광주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하세요”

市, 내달 3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 모집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등 15종 혜택

광주시가 지역 내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18일 “2025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희망 기업을 오는 9월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0년 첫 시행 이후 총 386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의 인증 기간 동안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구조조도와 자금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5종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모집 공고일(8월14일) 기준 광주 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 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인증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최근 1년 간 고용 실적, 최근 2년 간 고용 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환경 등 정량평가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직원복지 증진 노력, 고용창출 확대 방안,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 여부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부터 9월3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적극 기여한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일자리 우수기업에 혜택을 제공해 고용 창출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은행은 18일 본점 1층 로비에서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역민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지역민·임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상황 대비 능력 강화

광주은행은 18일 본점 1층 로비에서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역민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가 가정,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초동조치인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해 인체모형을 본뜬 최신 에니를 활용해 제세동기(AED)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기도 폐쇄환자

처치법(하임리히법) 등 실습과 이론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화재를 대비한 올바른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을지연습 및 경비원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CPR)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본점 경비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상황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심폐소생술(CPR) 실습 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민이라

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광주은행은 각종 사회·자연 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민방위 대비태세 유공으로 2024년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순회대 안전관리부장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광주은행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실제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지역기업·단체·기능인, 전국기능대회 성공 힘 보탠다

광주경총 등 후원금·물품 전달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지 광주가 선수단의 구슬땀과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후원으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8일 “오는 9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대회를 위해 광주경영자총협회, 기능한국인 호남제주지회, 광주기능선수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역 기업과 단체, 그리고 기능경기 출신 선배들이 후배 선수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며 성공 개최를 위한 힘을 보탤다.
특히 기능한국인 출신과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능인들이 직접 참여해 후배들에게 용기를 전한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광주기능선수회가 보여준 연대는 후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과거 기능경기대회에서 같고닮은 실력을 현장에서 발휘하고 있는 선배 기능인들이 사회의 전통과 긍지를 계승하기 위한 ‘선후배 상생 문화’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본부는 다음달 20일부터 열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자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청년들이 기능 분야에 더 큰 꿈을 품을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 3시~4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5시~6시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7시~8시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농협광주본부, ‘클린봉사단’과 침수피해 농가 지원

용전마을서 도배·장판 교체 등 구슬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18일 “(사)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복구 용전마을에서 재해재산 극복 클린봉사단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농협광주본부와 고향주부모임, 복광주농협, 복구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침수농가의 도배·장판 교체, 세탁, 주변 정리 등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생필품도 전달하며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현호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비록 큰 도움은

아닐 수 있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재해재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복구는 7-8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200여 세대의 주택을 대상으로 ‘행복동지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도배·장판 교체 공사 등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협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수해 복구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강진오일장터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강진군 광고문의 : 062)650-2099